

‘홍콩사태 불개입’ 트럼프에 비난 봇물

“중에 개입 청신호 줬다”

“민주화 지지 미국 전통 저버려”

강력한 경고음 주문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력 개입 우려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도는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손 놓고 있어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시위 진압을 위한 중국군의 홍콩 접경 집결로 자칭 ‘제2의 텐안먼’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데도 중국에 강력한 경고음을 내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보루’인 미국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미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미국의 전통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중국의 홍콩 개입에 ‘그린 라이트’(청신호)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과 만나 “홍콩 문제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매우 힘들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겠다”며 “그러나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 중국을 포함해 모두에게 잘 되길 바란다”고만 말했다.

이어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가 병력을 홍콩과의 접경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정보기관이 알았다”며 중국의 군대 파견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이들은 진정하고 안전하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중국군의 홍콩 사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중국과 홍콩 사이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중국의 무력 진압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발언은 충분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국무부 차관을 지낸 니콜라스 번스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교수는 “트럼프는 홍콩 시위에서 양쪽을 다 선호한다. 용기에 찬 모습이 없다”면서 “미국이 편을 들어야 할 유일한 쪽은 홍콩 시민을 위한 민주적인 권리뿐”이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외교정책 전문가 토머스 라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영토 개입의 청신호를 줬다”며 사실상 중국의 개입을 승인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들어 최악의 외교정책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홍콩 시위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중국을 두둔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집권 여당인 공화당도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선 대통령과 사뭇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공화)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홍콩 사태는

미·중 관계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텐안먼 광장 이후 30년 만에 모든 미국인은 홍콩에서 평화적인 시위자들과 함께 서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시위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 요구의 도덕적 권위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다.

집 백악관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위험한 언어는 오판을 초래한다”며 “베이징에 평화적인 시위대를 엄중히 단속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13일 홍콩 국제공항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점거 시위에 나선 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라질 200여개 도시 교육정책 반대 시위 교육예산 삭감과 민간자본 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수와 대학생 등이 13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는 상파울루 등 전국 200여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돼 90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러시아 핵추진 미사일 폭발 방사능 유출

폭발 현장 마을 주민 대피령

러시아 정부가 신형 미사일 엔진 폭발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렸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발 현장 인근의 방사능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려진 조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러시아 북부 아르한겔스크주 세베르도빈스크 지역 ‘노복사’ 훈련장에서는 러시아 국

방부가 진행하던 신형 미사일 엔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시험을 주관한 러시아 원자력 공사(로스아tom) 소속 과학자 등 7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사고 발생 후에도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더욱이 세베르도빈스크 시 당국은 노복사 주민들에게 14일 아침부터 마을을 떠나라고 권고했지만, 왜 마을을 떠나야만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시 대변인은 사고지점 인근에서 계획된 구체적인 작업(event) 탓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러시아 언론에 설명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시 당국은 해당 작업이 취소됐다고 밝혔지만, 대피 권고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주한 일본대사에 도미타 고지 특임전권대사 내정

내달 이임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후임에 한국 근무경력이 있는 도미타 고지(冨田浩司·62·사진) 특임전권대사가 내정됐다.

14일 한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업무를 맡아온 도미타 대사를 차기 주한 일본대사로 지명하고 한국 정부에 지난 7월 말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요청했다.

2016년 8월 부임해 3년 임기를 채운 나가미네 대사는 내달 이임하고 새 대사 부임 시기는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호고(兵庫)현 출신으로 도쿄대 법학부 재학 중이던 1980년 10월 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이듬해 대학 졸업과 동

시에 외무성에 들어간 도미타 대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했다.

이후 종합외교정책국 총무과장과 주한·주영·주미 공사, 북미국장, 주이스라엘대사 등을 거쳤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2006년 주한 정부공사 임기 중에 한국 노래를 자주 듣고 노래방을 즐겨 찾는 등 한국어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도미타 대사의 장인은 일본에서 극우 소설가로 이름을 떨쳤던 미시마 유키오(본명 히라오카 기미타케)다. /연합뉴스



친중파 홍콩 배우 성룡 “난 오성홍기 수호자”

‘우산혁명’ 지지했던 스타들, 이번엔 후폭풍 우려해 침묵

홍콩에서 반(反)중국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친중파로 잘 알려진 홍콩 배우 성룡(成龍·재기 찬·정통)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의 수호자임을 자부했다.

홍콩 태생인 그는 14일 중국중앙방송(CCTV) 인터뷰에서 홍콩 시위 상황으로 마음이 아프고 걱적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14억 명이 오성홍기의 수호자다’라는 운동에 동참한 것에 대해 “한 명의 홍콩인이자 중국인으로서 기본적인 애국심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활동을 통해 모두가 “나는 국가의 수호자”라고 크게 외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일부 시위 참

가자가 오성홍기를 내려 바다에 버린 일로 중국 본토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성룡은 안전과 안정, 평화는 공기와 같아서 있다가 없을 때만 소중함을 알 수 있다면서 “홍콩은 내 고향이고 중국은 내 국가다. 나는 내 국가와 고향을 사랑한다. 홍콩이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 영화에 주로 출연하고 있다.

홍콩 연예인들 가운데 일부는 송환법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가수 테니스 호는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중국을 회권국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미국인이 보는 미래 위협국 중·러 이어 북한”

퓨리서치 조사…응답자 86% “김정은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한을 최대 위협국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2%는 미래의 최대 위협 국가로 북한을 지목해 중국(24%)과 러시아(24%)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미국의 성인 1천5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한이 최대 위협국이라는 응답은 2007년 8%에서 2014년 7%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중국을 꼽은 응답자는 2007년 12%,

2014년 19%로 꾸준히 증가했고, 러시아는 2007년 2%에 불과했지만 2014년 23%로 급증했다.

반면 2007년 조사 때 이란을 꼽은 응답자가 24%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로 급감했고, 이라크라는 답변 역시 같은 기간 21%에서 1%로 현저히 감소했다. 지지 정당별로 공화당 지지자는 최대 위협국가로 중국(3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민주당 지지자는 러시아(36%)를 최우선 순위에 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계경제와 관련해 좋은 일을 한다고 얼마나 신뢰하는냐’는 질문에 86%의 응답자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호남동 대원 빌딩 **층별**

“특별분양”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분양가 470만원 ~

“추천 업종”

- 1** 높은전용률 **확트인 전망**
여유로운 주차 (300대 이상 주차공간)
- 2** 볼링장, 골프존 **10~12층**
11, 12층 천정고 6m
- 3** 특급 **한방병원 4~9층**
일반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A.P.T 모델 **하우스 1~3층**

분양문의 : (주) 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